

하루를 시작하며



이종실 사단법인 제주어보존회 상임이사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시골이었다. 이곳에는 '가름'과 '올레', 그리고 '우잣'이 있었다. '가름'은 여러 가구들이 모여 사는, 마을 안 거리였다. '올레'는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어귀였다. 여기를 들어서면, '우잣'이라는 울안이 있었다. 우잣 안에는 외양간과 개집, 초가인 안채와 바깥채, 닭장 등이 있었다. 온갖 채소가 자라는 텃밭인 '우영팻'과 돼지우리 겸 변소인 '똥통'이 있었다. 그리고 맨땅 바닥에 마른 풀을 쌓아놓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부엌, '정지'가 있었다. 먹고 쓰는 게 부족하고 살

고향의 봄

이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우잣은 식솔들을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로 품었다. 우잣 안 세상에는 사람이 있었다. 서로 야끼는 정이 그 바탕이었다. 작은 다툼이 없었으리라는 증으로 무장하여 물어뜯는 싸움은 없었다. 싸움에 한눈팔 여유도 없었지만 식솔끼리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했다. 서로 승부를 내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들의 도토리 키 재기'라 했다. 똑똑하거나 잘난 체는 올레 밖에 나가서 하라 했다. 남치는 예니지는 가름 밖 세상에 나가서 풀라 했다. 눈총이나 독한 욕설은 주먹질보다 더 큰 폭력이라 여겼다. 대소사 때 싸우는 소리가 나는 곳은 건강하지 못한 집 안이었다. 회초리나 부지깥이로 맞는 때는 다소 아프기는 했지만, 정이고 사랑으로 받았다. 우잣 안 삶은 행복했다. 욕심의 수준을 낮추고 어려움을 견디면서 만족

할 줄을 알았다. 부자로 살거나 잘 먹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성이었다. 덜 쪼들리고 덜 굶주리는 게 큰 소망이었다. 식솔들은 누구나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 아무리 어려어도, '세상 편한 게나 돼지'에게 밥을 주는 일이라도 했다. 간난은 불평 없이 절약으로 순응하고 인내하며 이를 극복하려고 애를 썼다.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평생 남에게 신세지며 산다고 했다. '벌어먹을 녀석'은 '개-돼지 같다'는 것만큼이나 심한 욕이었다. 우잣은 수신과 제가의 학습장이었다. 식솔들은 가족의 개념과 생활양식을 공유하며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았다.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는 역량을 이곳에서 경험하며 키웠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게 없었다. 판단을 그르치는 '가짜 뉴스'도 없었다. 좀 먹고 살만 해졌다고 자만하지도 않았다. 더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조상에 고마워했다. 심신을

가다듬고 가름과 마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자질을 키웠다. 우잣들은 더 큰 공동체인 가름과 마을을 이루어 서로 품앗이하면서 평화롭게 살았다. 고향과 봄이 그림자. 평생을 불박이로 살았는데, 앉은자리에서 고향을 잃었다. 무정한 도시가 들어오면서, '그 시골'을 잃어냈다. 올레와 우잣이 헐리고 가름이 사라졌다. 인심이 바뀌고, 인정이 스러졌다. 상식과 지혜가 빈약해지고 법도와 원칙이 무너졌다. 이 무정한 도시에는, 입춘이 지났지만 봄이 봄 같지 않다. 일 년 넘는 코로나19가 이 봄까지 어지럽히고 있고, 정국과 세상 형편은 견디기 힘든 엄동설한이다. 바이러스는 가기를 바라는데도 끈질기게 남고, '고향에 무지한' 자들이 저지르는 정국 관련 소식은 듣기가 역겨운데도 그침이 없다. 예전의 고향과 그 안의 '봄'을 무척 다시 보고 싶다.

열린마당

주택화재 종식 위한 최고의 선물 '119백신'



한동진 서귀포소방서 호든119센터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에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한파까지 겹쳐 온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가정에서 머무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화재의 위험이 부쩍 커지고 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코로나19 백신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 보급과 접종에 앞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과 예방 생활의 실천을 제안한다.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가 생명을 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되

고 있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 연립·다세대)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됐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의 무설치를 범죄화한 이후 주택 화재 사망자가 미국은 27년간 60%, 일본은 11년간 20% 감소했을 정도로 효과가 좋았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설치율이 55%에 미치는 수준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저렴한 비용과 간편한 설치로 효과가 아주 크다. 이미 주택화재에 안전성과 능력이 검증된 백신이다.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사용법도 간단하다. 화재는 코로나19처럼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지만 코로나19와는 다르게 예방이 가능하다. 신축년 설 명절을 맞아 매년 주고 받는 선물세트 외에 내 가족,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은 주택화재 종식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민·관광객 안심하는 제주 만들겠다”

도, CCTV 안전망 확대 약속 ○...고영권 제주도 정부부지사가 9일 서귀포시 범환동 소재 통합 CCTV 관제센터를 방문, CCTV 안전망 확대를 강조. 고 부지사는 이날 “CCTV센터는 단순한 보안·안전 영역을 넘어 제주형 스마트시티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도민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CCTV 안전망 확대사업에 8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언급. 이어 “CCTV 설치 확대와 인공 지능을 활용한 관제시스템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약속. 고대리기자

경제 활성화 방안 ▷현안문제 해결 ▷안전보호망 구축 ▷각종 재난 대처 방안 ▷저출산 문제 해결 ▷기타 모든 아이디어가 포함.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 발굴·변역을 바탕으로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 강민성기자

제주시, 시민과 소통 강화

○...제주시는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제안을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365 아이디어 제안'을 오는 11월까지 운영 예정. 제안은 총 6개 분야로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현안문제 해결 ▷안전보호망 구축 ▷각종 재난 대처 방안 ▷저출산 문제 해결 ▷기타 모든 아이디어가 포함.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 발굴·변역을 바탕으로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 강민성기자

사설

방역의 최대 고비 설 연휴, 바짝 긴장해야

올해 설 명절은 완전히 달라진다. 말이 명절이지 판세상처럼 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명절의 풍속까지 바뀌었고 있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뜻 깊은 시간이 아닌가. 그런데 올해는 가족의 정을 나누는 그런 '만남의 장'이 사실상 사라진다. 서울 복판에 내걸린 '설 연휴, 찾아 쉽지 않음'이라는 현수막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방역이 그만큼 높은 상황이란 얘기다. 제주 역시 많은 관광객이 설 연휴에 왔을 예정이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14만3000명이 제주에 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설 연휴기간(1월 23-27일) 방문객(21만1848명)보다 32.5%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최근 1주일간 1일 제주 관광객 2만 명 수준보다는 20-30% 가량 증가한 수준이어서 결코 적은게 아니

다. 3차 대유행이 이어진 지난달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 견주면 2배 가까이 많아서 그렇다.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설 연휴 때 관광객이 제주로 대거 몰려들 경우 자칫 재확산될 우려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분명 최근 제주지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제주에서 지역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연말연시 사우나, 카페 관련 연쇄 감염이 빈번 이후 다시 n차감염이 우려될 정도다. 잊고선 제주에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나왔다. 게다가 수도권발 감염 요인도 여전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확진자가 전반적인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이동하는 설 연휴를 맞았으니 말이다. 오죽하면 정부가 설날 모이는 가족수까지 제한했겠는가. 이번 설 연휴가 감염병 확산이나, 역제나 의 시험대에 선 것이다.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공론화 더 강화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새 해를 맞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제주특별법이 '특별법'을 크게 잃어버려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 방향성을 획기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작업은 미래 제주발전과 고도의 자치분권을 이룰 청사진인 만큼 핵심과제 선정과 공론화에 도민과 함께하는 과정을 한층 넓히는데 역점을 뒀다. 도의회 TF팀은 최근 교육의원 피선거구제 완화와 외국어교육(영리병원) 특례 폐지 등 주요 쟁점과제를 도출,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작업에 나선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교육의원 정수 축소 등 방안도 검토 중인 데 향후 의견수렴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도는 '범도정 TF팀'을 구성해 1차·관광산업, 자치행정·입법 등

7개 분야 핵심과제 발굴해 제주특별법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작업을 특별자치도 완성의 핵심으로 판단, 도민들에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도교육청도 이달중 '제주형 교육자치 분권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해 그간 미비영역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 재검토와 신규 과제 발굴, 제대로 활용못한 미활용 특례 제 정비 등에 나선다. 무엇보다 도와 의회가 특별자치도 출범 15년동안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을 지양, 환경과 도민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 개정 핵심과제의 필요성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특별법 개정 핵심과제의 '백화점식 나열'을 지양해 도민 관점에서 미래제주를 견인할 선택적 과제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부고 박문기(주)엠케이인터내셔널 대표) 어머니 김해림씨 순화(향년 93세)께서 서기 2021년 2월 9일 10시 1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2월 10일(수요일) ▶발인일시: 2021년 2월 11일(목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제9빈소 ▶장 지: 애월읍 광령리 가족묘지 아 들 박문기 며느리 이영선 박문철 사 위 이문선 박혜숙 사 위 고창영 박경숙 사 위 신영하 박영순 사 위 김병수 손 자 박지훈 손 너 박진희 위손자 이명수 위손녀 이정진 부대영 부재영 신성우 김영환 김소연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양공 창근(향년 9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2월 10일 아 들 양승부 며느리 이명윤 이희순 영진 강미정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양 현용만(1972. 8. 2생) *최후주소 :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43 (남원리) 상거자는 2020년 5월 7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2월 2일 제주지방법원 2021노단1028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첨단로5길 74, 209동 604호 (월평동, 제주점단말에그리2차아파트) 2021년 2월 10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현석만, 현명희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중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3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빙의·신들림 증세로 고생하시는분 상담환영 ◆전화·대면상담 무료 ◆빙의천도 최고전문가 영가천도, 빙의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시 삼수로 47 3층(연동) 064)746-0789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양 김광호(1942. 11. 4생) *최후주소 : 제주시 월두4길 11, 3층 302호(아라이동, 서영원동) 상거자는 2020년 9월 29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1월 15일 제주지방법원 2021노단936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월두2길 35, 103동 101호(아라이동, 남양테크빌) 2021년 2월 10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지운, 김지용, 김지현(김윤오)

해산 및 이의신청, 채권제출공고 당 협동조합은 2021년 01월 14일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고, 2021년 01월 29일 해산당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당 협동조합의 해산에 이의가 있거나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신청 및 채권액을 당 협동조합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2월 10일 서귀포시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628 청산인 김수남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하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